

# SK 노조 “출자전환 결사반대...”

채권단은 소버린 입장 무시 출자전환 강행 ... 철저한 상업적 판단

SK글로벌 경영정상화를 위한 SK의 매출채권 출자전환을 놓고 SK그룹과 소버린자산운용·소액주주 노조 간 공방전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SK 노동조합은 SK 경영진이 출자전환에 동의하면 배임행위로 간주해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버리고 있어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SK 노동조합은 6월5일 SK가 회생이 불투명한 SK글로벌을 지원한다면 동반부실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SK 이사진이 배임행위를 한다면 소액주주들과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SK 노조는 민주노총 등 10개 단체와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SK글로벌 채권단도 우월적 지위로 계열사를 압박해 SK로부터 받아낸 SK글로벌 부당지원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SK 노조는 SK글로벌에 대한 부당한 지원이 의결된다면 SK 이사진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서를 유정준 SK 전무와 박홍수 연세대 교수 등 8명의 SK 사내외 이사들에게 발송했다.

이에 대해 SK그룹은 SK가 SK글로벌에 출자전환을 하는 것은 철저한 상업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SK글로벌이 청산되는 것보다 출자전환을 통해 살리는 것이 SK에도 이득이 된다고 밝혔다.

SK글로벌 정상화추진본부 대변인인 이노종 전무는 “계속 기업가치가 높은 SK글로벌 주식을 SK가 출자전환으로 보유하고 주유소 영업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 SK글로벌의 영업이익만큼 SK의 영업이익이 올라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SK글로벌이 청산되면 SK의 손실은 2조원 이상으로 예상된다”면서 “SK의 출자전환은 어디까지나 SK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SK글로벌 정상화추진본부 조직은 직접 이해당사자인 SK글로벌과 SK 멤버가 주축이며, 손길승 회장은 SK글로벌의 대표이사 회장을 맡고 있어 충분히 협상주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SK 대주주 소버린자산운용은 6월4일 SK그룹이 SK 대신 채권단과 협상할 근거가 없다면서 법률적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반면, 채권단 대표인 김승유 하나은행장은 기자회견에서 “SK의 대주주인 소버린자산운용이 투기적 투자자”라고 분석한 뒤 “위험을 감수하고 고수익을 기대해 들어온 투기적인 투자자이므로 손실을 볼 수도 있어 굳이 소버린자산운용의 이익을 고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채권단이 SK글로벌 정상화와 관련해 SK에 자구협조를 요청한 것은 SK글로벌의 대주주이자 청산 시 매출채권 등 약 1조800억원의 손실을 입게 되는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해 상업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설명이다.

<Chemical Journal 2003/06/09>